

### 암도스님 명성스님 '박사학위'

# 학문열정 후학들에 귀감



◇ 암도스님



◇ 명성스님

### 암도스님 '인도불교의 삼학연구'

### 명성스님 '삼능변의 연구'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이 이번 주제 연구에 바탕이 됐다"고 밝히고 "현재 한국불교계는 선정 일반도로 흐르고 있으나 이는 삼학의 기본정신과 역사적 전개에 대한 연구의 부족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박사논문의 중심도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해 부처님께서 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유를 밝히는 동시에 삼학사상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의의를 분석했다. 암도스님은 "삼학의 지혜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증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방편지(方便智)로 작용할 때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삼학의 목적이 요의중생(饒益眾生)으로 전이(轉移)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성스님은 1952년 해인사에서 출가한 후, 40여년간 비구니 교육에 전념해온 비구니 승가교육의 산 증인. 특히 이번 학위취득은 지난 1974년 박사과정 수료후 24년만이어서 더욱 뜻깊다고 주위에서 한 목소리. 명성스님은 74년 박사과정 수료 당시, 故 김동화 박사로부터

중국대 강의를 요청받았으나 비구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운문사 강원으로 내려갔을 정도로 승가 교육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명성스님은 문하에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흥륜·일진·계호스님 등은 은사의 뒤를 이어 학문 연구와 후학지도에 매진하고 있다. 일진스님(운문승가대 강사)은 "후학들에게 배사에 임하여 진실하라

(即事而眞)'는 말을 늘 강조하신다"며 "꾸준히 공부하시는 스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말없는 교훈이 되어왔다"고 말했다. 교화중에서도 난해하다는 유식학을 연구, 독보적 경지를 개척한 명성스님은 석사논문 '초능변식(初能變識)의 연구'에 이어 이번 박사는 문도 유식삼심승(唯識三十論) 중 제1송부터 제16송에 이르기까지 삼심승의 식상(識相)을 해설했다. 명성스님의 박사논문은 우주간의 삼라만상은 모두 일체중생 각자의 주제인 아뢰야식(阿賴耶識)으로부터 전변(轉變)한다는 의의를 고찰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opia.com)

### 각 대학 불교관련 석·박사 주요논문

각 대학별 97년도 후반기 석·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됐다. 중국대 박사 6편 석사 14편 등 총 20편을 비롯, 서울대·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불교관련 논문을 소개한다.

#### 박사학위

〈동국대〉△ '삼능변(三能變)의 연구-승유식론을 중심으로' (명성스님·운문사주지) △ '인도불교의 삼학연구' (암도스님·조계종 교육원장) △ '불교사상을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낙태문제연구' (프랑크테데스코·세종대 영문과 교수) △ '보살사상 성립사의 연구' (이봉순) △ '육조선에 관한 연구' (김호귀) △ '초기 미방사학파의 제사관 연구' (김재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근대 한국불교의 성립과 종교의식-이동화와 권상도를 중심으로-' (이재현)

#### 석사학위

〈동국대〉△ '법화경에 나타난 비유의 사상 연구' (김영일) △ '선무의삼장(善無畏三藏)의 생애와 사상 연구' (이종석) △ '일축의 해심경소 연구-삼성삼무설(三性三無說)을 중심으로' (양재경) △ '10년 <서울대> △ 화엄불교 구원론에 관한 연구' (고명선) (원광대) △ '법화경 교의사상 전개' (강보승) △ '북한의 불교정책과 대북한 포교방안에 관한 연구' (김의중) △ '근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고려 후기 백련결사에 나타난 정토사상' (김영순)

#### 학술단신

교수가 지도법사로 참석한다. 참가비 6만원, 30일 접수마감. (02)3411-6167 불전국역연 수강생모집 중양승가대 부설 불전국역연구원

(원장 지하스님)은 '한역 및 산스크리트어 불전연구' 수강생을 모집한다. △ 산스크리트어문법 기초·중급 △ 화엄학 특강 △ 유식학 연구 등이 개설되며 강의는 9월부터 시작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31일까지. (02)929-9991

## 왕권과 승단의 관계 남방-북방불교 '상반'

송위지교수 '지역간 불교위상 비교'

상좌부 불교를 온전하게 유지 발전시킨 남방불교 지역과 대승불교를 받아들여 새로운 형태로 재발전시킨 북방불교 지역에서 종교와 국가권력의 관계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송위지 교수(외국어대)는 '외대사학' 제8집 별지로 발행된 '남방불교 지역과 북방불교 지역간의 왕권과 승단의 위상비교'에서 '남방불교에서는 왕 스스로 왕의 존재 이유에 대해 불교를 보호·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반면, 북방불교는 왕권에의 도전, 타락을 거둬들이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애국적 개념과 왕권의 우호적인 입장에 대한 보답으로써 호국불교의 형태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송교수는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대표적인 스리랑카와 중국 불교를 비교, 종교적 문화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왕권과 승단과의 관계를 고찰했다. 종교적 문화현상은 종교를 수용하는 계층의 사회적 위상이나 요구에 의해 종교적 입장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상.

송교수는 "스리랑카는 승단 그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어 영국 등 서양세력의 침입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불교 법단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중국불교는 왕권신수적인 왕은 곧 하늘(天)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수용, 왕권과의 타협 속에 기존의 중국 사상들과 조화를 이뤄나간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 美 도심불교축제 '관심' 명상등 신행활동 확산

미국의 6·7월은 도심 한 가운데서 명상을 선보이고 법회를 여는 오분축제, 종교자유축제, 티벳축제 등 불교축제가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동양의 종교축제가 이렇듯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

LA타임즈 종교전문기자 테레사 외타나브가 '동양의 신앙을 맞본 미국의 문화'란 주제의 글을 발표, 미국에서 불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를 진단했다.

이들 불교축제에 본토 미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 외타나브는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불교 수행은 이미 집단적 종교집회를 선호하는 미국인의 신앙형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인의 생활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경향은 불교신자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조차 고통스럽고 복잡한 사회보다는 자유로운 종교적 수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상에서 잘 나타나 있다. 또 미국인들의 종교관의 혁신은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평등주의, 세계주의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기자

## 티벳난민의 수공업품 네팔 경제살리기 '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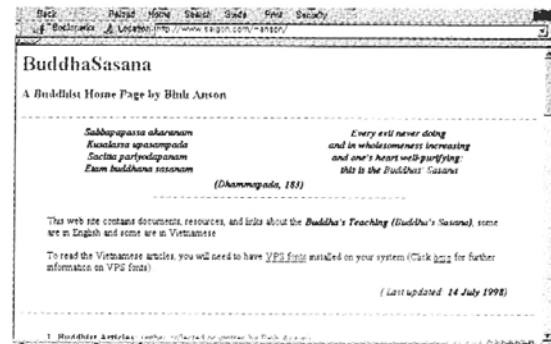
티벳난민들의 수공업품이 네팔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힌두교 상징물과 힌두교도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카루만두 중심가에 우뚝 선 보타나트 사원과 카올라벨 수공업 센터는 네팔에서의 티벳난민들의 종교와 사회생활을 잘 보여주는 네팔의 명물이다.

이 곳의 티벳난민들은 보타나트 사원에서 티벳불교와 티벳 전통종교를 지키고 카올라벨 수공업 센터에서 카페트를 포함한 전통적인 불교수공업품을 만든다. 이 공예품들은 네팔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고가품으로 팔려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한편 네팔 경제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팔에 거주하는 티벳 난민들은 2천여명. 타슈 남갈스님(티벳망명정부 네팔책임자)은 "티벳난민들은 망명지에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수공업 센터와 같은 곳을 설립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 부다사사나

## 불교논문등 영어-베트남어로 소개 자비실천 등 20가지 덕목 '눈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여러 논문과 원전에 관한 소개가 영어와 베트남어로 제공되는 사이트가 '부다사사나(Buddhasasana)'이다.

베트남 불교학자 빈 안선박사가 개설한 이 사이트는 불교 전반에 대한 여러 논문들과 자료들이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베트남 불교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에피소드 중심으로 불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불교의 맥을 짚어볼 수 있다.

이 곳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와 논문들은 총 41편. 여기에는 △달마의 세가지 서약 △명상과 회상의 유용성 △베트남어 대장경에 대한 개괄적 검토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불교와 환경보호운동 △숲 속의 맑은 영혼 △불교와 민주주의 △진실한 불자의 행로 등이 있다.

'배알리어 대장경에 대한 개괄적 검토'에는 경전의 결집과정, 율, 논 삼장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다. '불교와 환경보호운동'은 베트남의 가장 유력한 불교잡지 편집인 티안스님의 글이다. 티안스님은 이 글에서 "25세기 전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생명체와 환경의 보호"라고 강조했다.

티안스님에 따르면 수천년동안 산속이나 숲속에 건립된 사찰은 인간과 자연이 얼마나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채식주의자인 스님들은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야생 동물들과도 조

화롭게 살아 왔다는 것이다. 티안스님은 "외부환경이 심하게 오염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나 지성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진실에 관한 갈망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마음의 자세에서 환경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실한 불자의 행로'는 스리랑카의 유명한 선승인 마하나 아케스님이 영국 사드하타사(Saddhatissa) 국제불교센터와의 인터뷰를 게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마하나아케스님이 현대의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것으로 꼽은 20가지 실천덕목은 지금까지 영국불자들의 생활 지침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실천덕목에는 △가난할 때 자비를 베푸는 것 △높은 직위에 있을 때 수행하는 것 △경쟁을 기회로 삼는 것 △수욕과 욕정에 종속되지 않는 채 그것들을 간직하는 것 △사물의 존재성과 비존재성을 규정하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 △불길적인 유혹을 견디어 내는 것 △폭넓게 공부하고 모든 사물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 △평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타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면서 그들을 교화시키는 것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교리에 관한 개괄적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과 근부 가르침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한 '살아있는 부처' 등도 열람해 볼만한 글들이다. http://www.saigon.com/~anson/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 나의 조상은 누구인가? 성씨대보총람

순한글 안역본 부락, 275명문성씨 동방애의지극애 흔하추동 사계절이 뚜렷한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백의 민족으로 태어났으니 정부가 가족의 후손이요, 양반의 손자들이다. 나의 시조, 증시조 우뚝은 무슨 벼슬을 했을까?



성씨대보 총람(전4권) 특별선물 1 2 ₩150,000

특별선물 1: 현대인에게 새로운 비전을 정립해줄 동양 고전의 정수 4x6배판 1,020면 사서대오겉 정가: 50,000

특별선물 2: 수백년동안 우리 선조들이 갖고 닦아온 문화민족의 위대한 유산 4x6배판 1,020면 첩세서대전 정가: 50,000

국내최고 방대한 한글안역

【대한민국 성씨대보 총람(상)】 제 1권: 275성씨별 총선·시조의 연인·본관·세거지·번천사·집성촌·단군왕조 이래 2000년역대임금·종언과 업적들 칼라로 수록

【대한민국 성씨대보 총람(상)】 제 1권: 원형 그대로의 육체와 마패등 유물 칼라로 수록·세계표, 항렬표, 역대인물, 성씨별 인구분포도·현대인물·묘선, 서원, 평당, 정려, 행의문과 소재지

【대한민국 성씨대보 총람(상)】 제 1권: 역대위인 3,000여 위(位)·종언·400여 독립유공자 종언과 부경사

【대한민국 성씨대보 총람(상)】 제 1권: 시조, 종조, 파조, 선조명칭·성씨 본관별 세계표와 묘소, 제우·묘자각, 열녀문, 신도비, 묘비등 성씨별 유물과 유적지등 칼라 집대성

\* 가장교육·사회생활·연중시험에 로드·예절·조상의 얼을 기른대대로 후손들에게 전달 전통적 문화생활에 줄서하려면 먼저 기본을 알고 자기를 생각하고 기회를 만들어 사회에서 달려라

구입방법: 총금액: 580,000 특별요금: 150,000 할부: 50,000x4회 (02)231-7323~5 뿌리찾기중앙회

##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침정상 불변의 법화사상의 진모와 진수

##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I II III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무식으로의 여행이다. 계속 무식해지고 무식해져서 무식이라는 남달라진 불일 수 없을 때 진리가 드러나리라. 지식으로 도(道)를 얻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다면 세상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도(道)가 되었을 것이다.

이 책과 인연있는 사람에게 바라기니와 반드시 가득 찬 마음보다 주어서 텅 빈 가슴이 편하니 이로써 보살행 무지행을 하소서 성내경 지음/각 권 15,000원

1권 길은 길이 아니고 도는 도가 아니다  
2권 걸림없고 위없는 길을 찾아서  
3권 해와 달이 빛나면 어둠은 없다

이 책과 인연있는 사람에게 바라기니와 반드시 가득 찬 마음보다 주어서 텅 빈 가슴이 편하니 이로써 보살행 무지행을 하소서 성내경 지음/각 권 15,000원

■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 보약도 나쁘다 ■ 정력치는 없다 ■ 과장을 지워라 ■ 달배가 그렇게 유쾌한가 ■ 착한 일을 행하지 말라 ■ 애완동물은 사람이 아니다 ■ 운동은 하지 말라 ■ 한편 종교와 사이비 종교 ■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 ■ 병도 소심이 있어야 낫는다 ■ 의자는 자위를 가르침 자리가 없다 ■ 차라리 패라! 교육은 이래나 실적이 아니라 성공이 외에는 약이 없다 ■ 약법은 법이 아니라 지킬 필요가 없다 ■ 웃기지 않는 것은 도가 아니다 ■ 성불도 인연이라 일어난다 ■ 스스로 최상승의 근거를 만들라 ■ 묘비연화 경을 미로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후고 중간도 후고 끝도 후다 ■ 부처님은 왜 이 세상에 나오셨는지 ■ 약법은 법이 아니라 지킬 필요가 없다

주명: 본 회보와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을 뛰어넘어 초월하는 뜻의 책을 서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도서 출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1가 82 태수빌딩 201호 TEL 636-6873 FAX 636-6874